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82.18	↑ 코스닥	921.48
	(-2.37)		(+2.32)
↑ 금리 (미국 9년)	3.765	↑ 환율 (원-달러)	1330.60
	(+0.027)		(+10.80)

심정지 후 뇌손상 급감
‘넬로넨다즈’
조기 출시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6일 수요일

‘9월 위기설’, 정부 일축에도 경기 지표 경고등에 우려 증폭

‘코로나지원 종료’ 위기설 불지퍼 연체율 치솟고 부실채권 증가 등 경기 수치 악화에 불안감 확산

금융 수장들 논의 후 “근거 없다 정부 상저하고 전망 그대로 유지”

‘9월 위기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진원지는 한 곳이 아니다. 대내적으로 코로나19 대출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데다가 대외적으로도 중국발 부동산 침체와 함께 고금리에 따른 선진국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졌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서둘러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경제지표 악화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에 그쳤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0%대 성장이 이어졌다.

지난 2000년 미국 리먼사태와 2011

년 유럽 재정위기, 1997년 우리나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시작된 시기가 모두 9월이었다. 작년 9월에는 증시 붕괴론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대내적으로 코로나 대출의 유예 지원 종료로 ‘9월 위기설’의 불을 지폈다. 금리는 치솟았는데 경기는 회복세가 느린 탓이다. 정부가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개된 수치로만 보면 여느때보다 상황은 좋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난 3일 모여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해 논의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 대출’은 오는 2025년으로 만기가 연장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불확실성이 많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역시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 “상저하고”라는 정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공개되는 경기 수치는 부정적이다. 연체율은 치솟고, 부실채권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만 4조원이다. 전분기 3조원 대비 1조 원이나 급증한 것은 물론 작년 2분기(2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신규 부실만 2조4000억원 규모다.

당국이 부실채권 정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상반기 말 기준 0.3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5%포인트(p) 상승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1330원 돌파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37포인트(0.09%) 내린 2582.18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80원 오른 1330.6원을 보이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미국서 ‘뚜레쥬르 빵’ 만든다 CJ푸드빌, 조지아주에 첫 공장

美에 뚜레쥬르 1000개 매장 목표 500억 이상 투자, 연내 착공 계획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미국 공장을 설립하고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CJ푸드빌은 최근 미국 공장 설립 투자 내용을 확정하고 조지아 주로 공장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30년 미국 내 뚜레쥬르 1000개 매장 확보’ 목표에 맞춰 이번 미국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식품업계로는 최초로 미국 동남부 지역인 조지아 주에 진출하게 되며, 홀카운티 게인스빌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약 9만㎡ 부지에 생산공장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CJ푸드빌이 이번에 설립을 결정한 미국 공장은 냉동생지, 케이크 등 연간 1억개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규모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 현재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북미지역 뚜레쥬르 가맹점의 생산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CJ푸드빌은 공장 후보지로 조지아 주 외에도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검토했으나, 주 정부 장관이 CJ푸드빌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이번 공장 유체에 가장 적극적이고 친기업 환경의 조지아 주를 최종 낙점했다.



뚜레쥬르 미국 세리토스점 전경. /CJ푸드빌

실제로 조지아 주는 미 전역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330여 개의 글로벌 제조, 식품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곳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CJ푸드빌 역시 향후 조지아 주 현지의 3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 효과를 제공할 전망이다.

CJ푸드빌은 2004년 뚜레쥬르로 미국에 진출하며 첫 해외 사업을 전개했다. 2009년부터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CJ푸드빌 해외법인 중 최초로 독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현재 LA,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미국 26개 주에 진출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 하며 현지인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中 7나노 공정 확인… 美 규제 ‘무용론’ 확산

화웨이 ‘메이트60 프로’ 통합칩 ‘SMIC 7나노 공정서 양산’ 결론



화웨이가 발표한 메이트 60 프로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음이 확인됐다. 여전히 최신 기술과 비교하면 수세대 뒤쳐지긴 했지만, 미국 무역 규제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모습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사이드는 화웨이 메이트 60프로를 분해해 7나노 공정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메이트60 프로는 화웨이가 지난달 공개한 플래그십 모델이다. 미국 무역 규제 속에서도 새로 개발한 통합칩(SoC)인 기린 9000s를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5G 통신도 지원한다.

테크인사이드는 기린9000s가 중국 SMIC가 개발한 7나노 공정에서 양산했다고 결론냈다. 구체적으로는 14나노 핀펫 공정을 개량한 N+2를 지목했다.

테크인사이드에 따르면 기린 9000s는 다이가 107mm로 전작인 기린9000

보다 2% 크다. 다이를 다방면으로 분석해 SMIC가 제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트랜지스터 게이트와 하부 백엔드 오브 라인(BEOL) 금속화 피치 등에서 7나노 공정 특징이 보였다.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뿐 아니라 장비 수출 규제도 14나노 이상 양산을 불가능하게 압박하는 상황, 중국이 결국 이를 돌파했다는 의미다.

이미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돕는 일이라고 비판해왔다. 경쟁

을 막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일단 업계에서는 중국이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갖췄다는 데 회의적인 분위기다. 7나노 공정을 양산하는 노광장비가 구형인 심자외선(DUV)일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ArF의 경우 파장이 193나노에 달해 7나노 공정으로 만들려면 최첨단 장비인 EUV 대비 수십 배 공정을 더 반복해야 한다. 생산 기간이 길어짐은 물론 수율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메이트60프로는 한정된 물량만 판매 중이다. 이 때문에 기린9000s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SoC를 뒤늦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장비도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의 자체 반도체 노광장비 기술력은 100나노 남짓, 그나마도 상당 부분을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채 상병 외압 의혹에 국방장관·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 /사진 뉴시스

▲ 하태경 “‘홍범도 선거’ 되면 국민의힘 망해… 지도부 나서야”
▲ 유상범 “이재명 단식 이어지면 9월 중 검찰 구속영장 청구 어려워”



▲ 단식 이재명, 김진표 의장에 “정치 사라져”… 김 “여야 존중해야” /사진 뉴시스
▲ 북러 정상회담 추진설… 통일부 “평화 훼손 않아야”